Analyst 김윤보 · 02)6923-7331 · younbokim@capefn.com

CAPE Global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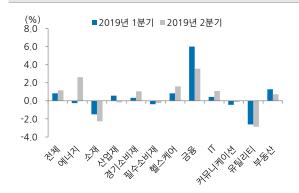
2분기 실적시즌: 커져가는 미국 상장사 실적 불안감

- 미국 증시 내 대부분 업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나,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비율은 이전 대비 하락
- 이번 실적시즌에서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 이후에도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기업이 증가함. 증시 내 실적 서프라이즈 를 기록한 종목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시장 전체의 실적 컨센서스 하향세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작용
- 상장사 실적 불안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 실적 추정치 개선세가 지속되는 종목군에 주목

[2분기 미국 실적시즌 결과] 대부분 업종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서프라이즈 종목 비율은 이전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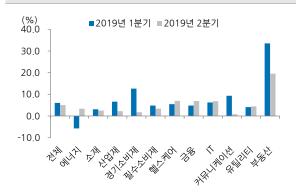
- 시가총액 기준 S&P500에 상장된 87.8%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한 가운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 1분기 실적시즌과 유사한 서프라이즈 비율(서프라이즈 금액/예상치 비율)을 유지
-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금융, IT 등 업종의 서프라이즈 비율(당기순이익 기준)이 개선되었으며, 부동산, 소재, 소비재 등 업종의 서프라이즈 비율이 전분기 대비 하락함. 에너지 업종의 서프라이즈 비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 전환함
- 전체 종목 중 당기순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비율은 대부분의 업종이 70%를 상회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그러나 헬스케어와 금융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서프라이즈 종목 비율은 전 분기 대비 하락함

그림1. S&P500 업종별 매출액 서프라이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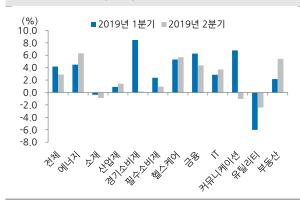
자료: Refinitive,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S&P500 업종별 당기순이익 서프라이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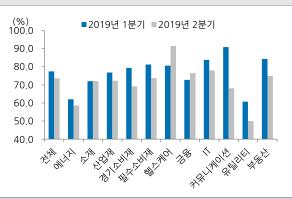
자료: Refinitive,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S&P500 업종별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비율



자료: Refinitive,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S&P500 당기순이익 서프라이즈 종목 비율



자료: Refinitive,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APE Market Analysis 2019/08/19

CAPE Global Issue | 2분기 실적시즌: 커져가는 미국 상장사 실적 불안감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 추정치 하향 기업 급증, 미국 증시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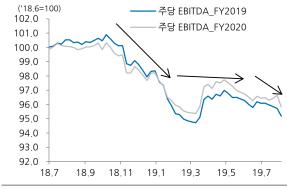
• S&P500 상장사 중 당기순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비율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었던 2018년 하반기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무역협상 재개 등 영향으로 올해 1분기부터 70%대 수준을 다시 회복함

• 이번 실적시즌에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비율은 약 74%의 높은 수준을 유지함. 그러나 당기순이익과 EBIT 등 이익 추정치는 실적 시즌이 개시된 7월 이후 하락세를 재개했으며, 매출액 추정치 또한 하향세를 지속함

그림5. S&P500 당기순이익 서프라이즈 종목 비율



그림7. S&P500 EBITDA 컨센서스: 최근 하향세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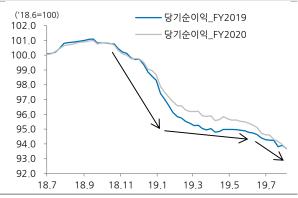


자료: Refinitive,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S&P500 매출액 컨센서스: 하향세 지속



그림8. S&P500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최근 하향세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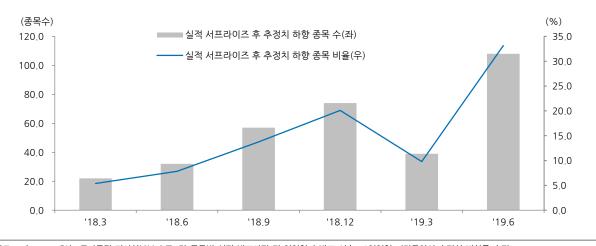
자료: Refinitive,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일반적으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은 이전 대비 개선된 실적과 업황을 바탕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애널리스트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적 발표 이후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함
- 이번 실적시즌에서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하향 조정된 기업들이 큰 폭으로 증가 함. 이는 실적 서프라이즈 종목 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실적 컨센서스 하향세가 지속되는 주 원인중 하나로 작용함
- 이는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향후 실적에 대한 시장 내 기대감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실적 서프라이즈를 통해서도 이러한 시장 내 부정적 센티먼트를 회복시키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시사함
-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 이후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기업 수는 무역분쟁이 개시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번 2분기 실적시즌에는 최고치를
- 업종별로는 산업재와 에너지, IT, 금융 등 무역분쟁 및 시장금리 하락의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던 업종 내 종목들의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지난 1분기 실적시즌 대비 더 많이 발생함

CAPE Market Analysis 2019/0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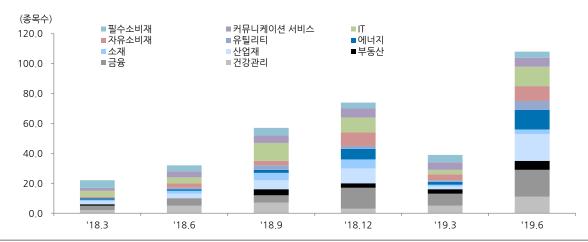
CAPE Global Issue | 2분기 실적시즌: 커져가는 미국 상장사 실적 불안감

그림9.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중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종목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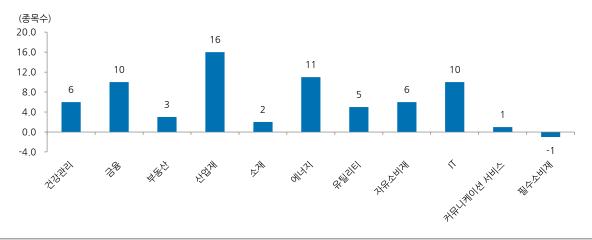
자료: Refinitive,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주: 각 종목별 실적 발표시점 전 영업일과 발표 이후 10영업일 기간동안의 추정치 변화를 측정

그림10.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중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종목 수(업종별)



자료: Refinitive,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주: 각 종목별 실적 발표시점 전 영업일과 발표 이후 10영업일 기간동안의 추정치 변화를 측정

그림11.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 실적 추정치 하향 종목 수 변화(업종별, 2019년 1분기 실적시즌 대비)



자료: Refinitive,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주: 각 종목별 실적 발표시점 전 영업일과 발표 이후 10영업일 기간동안의 추정치 변화를 측정

CAPE Market Analysis 2019/08/19

CAPE Global Issue | 2분기 실적시즌: 커져가는 미국 상장사 실적 불안감

상장사 실적에 대한 불안감 확대,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도 추정치가 개선된 종목에 주목

•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 단기간 내 전격 타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 미국 상장사 이익 추정치는 당분간 하향 또는 정체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상장사 실적에 대한 불안감 또한 확대될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이후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실적 발표를 완료한 S&P500 기업 중 실적지표(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가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서프라이즈를 기록 이후에도 실적지표(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 중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

표1.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 추정치 상향 조정 종목 리스트								
종목명	업종	시가총액 (백만달러)	실적 서프라이즈 비율(%)			실적 발표 이후 추정치 변화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UNITEDHEALTH GROUP	건강관리	235,622	0.1	9.9	4.3	0.5	1.4	1.2
MERCK & COMPANY	건강관리	218,963	7.3	11.6	12.3	2.0	2.7	2.5
AMGEN	건강관리	117,691	3.4	6.5	10.6	1.0	0.7	2.4
STRYKER	건강관리	81,831	1.4	3.7	2.2	0.6	1.7	0.7
ZOETIS	건강관리	59,761	2.1	6.4	9.8	0.6	1.0	1.2
INTUITIVE SURGICAL	건강관리	59,413	6.4	16.0	13.2	1.2	1.2	1.2
S&P GLOBAL	금융	63,100	3.3	6.6	6.7	0.7	2.0	1.3
MARSH & MCLENNAN	금융	50,267	1.1	4.1	4.1	0.9	1.0	0.2
AMERICAN TOWER	부동산	98,378	3.2	5.3	6.3	0.9	1.3	0.6
CROWN CASTLE INTL.	부동산	58,721	3.8	6.6	26.5	0.5	1.6	4.2
STARBUCKS	경기소비재	115,271	2.2	4.9	7.7	0.8	2.3	0.8
GENERAL MOTORS	경기소비재	56,552	0.2	15.2	14.3	0.1	3.0	3.2
PROCTER & GAMBLE	필수소비재	292,214	1.4	0.3	4.6	0.8	1.0	2.3
PHILIP MORRIS INTL.	필수소비재	128,497	4.4	7.2	10.4	0.7	0.7	0.6
MICROSOFT	IT	1,051,471	2.9	10.3	12.9	0.9	1.2	1.3
APPLE	IT	908,309	0.8	1.4	3.9	1.0	0.8	1.8
MASTERCARD	IT	275,805	0.8	2.7	3.6	0.4	0.3	0.1
INTEL	IT	203,691	5.1	12.5	18.6	0.6	1.0	1.6
FISERV	IT	71,556	0.5	0.5	1.7	152.6	133.6	22.5
ALPHABET	커뮤니케이션	356,113	2.1	6.4	25.8	1.6	2.2	5.1

자료: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주: S&P500 상장사 기준, 시가총액 500억달러 이상

Complian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